

본 자료는 2004.6.22(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성과	자원개발과
		담당자	이유종 과 장 박종원 사무관
		전 화	2110 - 5434

<PC통신 : go opengo, 천리안 go epic, 인터넷 : <http://www.mocie.go.kr>>

정부 · 업계 CEO, 해외 자원개발 확대전략 모색

- 이희범 産資, 업계 CEO와 해외 자원개발 전략 협의회 개최-

- 6.21(월)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은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SK(주), 대우 등 해외 자원개발 업계, 수출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CEO 등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전략 협의회」를 개최함

< 해외자원개발 전략협의회 >

- 일시 및 장소 : 6.21(월) 12:00-14:00, 인터콘티넨탈 호텔(2층)
- 참석기관 : 약 30명
 - 정부 : 산자부(주재 장관), 재경부, 예산처, 외교부, 동북아위원회(국장)
 - 업계 :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포스코, 한전, SK, 대우 등
 - 관련기관 : 수출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세부 참석자 별첨

- 이번 「해외 자원개발 전략 협의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최근의 원자재 부족 및 高유가 상황에 대한 근원적 대처 방안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업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음

□ 정부와 업계는 최근들어 자원 부국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각국에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방안을 협의하였음

- 러시아의 경우, 석유공사와 러시아 국영석유사(Rosneft)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을 통해 동시베리아 유전개발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사할린 유전·가스전 개발 참여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함

* 6.25일 산자부 장관,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 면담시 우리 기업의 동시베리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방안을 협의할 예정

- 남미의 경우 칠레, 브라질 등과 금년 하반기중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함

- 중앙아시아의 경우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카스피해 유전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카자흐스탄 육상 유전개발 사업, 우라늄 등 전략 광물 개발사업도 추진하기로 함

* '04.3월 산자부 장관, 카자흐 방문시, 카스피해 유망광구 개발권, 일반광물(동아연 등) 조사 개발권을 획득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 우라늄 개발 참여를 위해 산자부, 한국수력원자력, 광진공 등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6월)

□ 정부는 우리 업계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확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함

① 해외 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확대

-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규모를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토록 추진

* 해외자원개발 예산규모 : (02) 1,635 → (03) 2,356 → (04) 2,881억원

- 해외 자원개발 정부융자 금리 인하 : 3.5% → 2.5%(6. 21일 시행)
- 수출입은행의 해외 자원개발 금융지원 확대 : '05년 2,000억원 수준

② 자원개발 성공불 융자 대상 확대

- 기존 석유, 유연탄 등 16개 광종에서 일부 보석류(루비, 사파이어 등) 등을 제외한 모든 광물로 성공불 융자 대상을 확대
- * 현행 성공불 융자대상 광종 : 석유, 석탄, 우라늄, 동, 철, 아연, 연, 알미늄, 안티모니, 망간, 니켈, 크롬, 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덴, 희토류 등 16개 광종

③ 성공불 융자 지원 비율 상향

- 해외 유전개발 업계의 탐사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성공불 융자 지원비율을 10% 상향조정
- 유전개발 탐사 성공불 융자비율 : 현재 70% → 80%로 상향 조정

④ 해외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의 역량 강화

-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 사업분야로 업무중심을 전환 (자본금 확충 등을 내용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 추진)
- 석유공사의 경우 해외 개발사업 및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전략지역에 현지 사무소 개소를 추진

⑤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4-'13) 수립

- 7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9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함
- *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동 용역 수행중

- 한편 해외 자원개발 업계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일정비율 세액공제, 부채비율 적용시 성공불 용자 금액 제외 등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이회범 산자부 장관은 금일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제2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로 설정하여 자원 외교 강화, 민간 투자위험 완화 지원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 바, 해외 자원개발 업계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과감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함

<첨부> 해외자원개발 민·관 전략협의회 참석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비 고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	자원정책실장	배성기	
"	자원정책심의관	윤성규	
동북아위원회	국 장	최평락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허용석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이인식	미 정
외교통상부	국제경제심의관	정래권	
수출입은행	전 무	이 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 장	박춘택	
한국석유공사	부사장	정용현	
한국가스공사	사 장	오강현	
포스코	사 장	강창오	
한국전력	부사장	정태호	
한국수력원자력	사 장	이중재	
삼탄	사 장	강태환	
LG 상사	부사장	하영봉	
SK(주)	사 장	신헌철	
대우인터내셔널	사 장	이태용	
LG 칼텍스정유	부사장	손영기	
서울도시가스	회 장	배경운	
대림산업	사 장	이용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진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 장	이태섭	